Virginie T.
CHAMPAGNE

블랑 드 누아 그랑크뤼 엑스트라 브뤼
Blanc de Noir Grand Cru Extra Brut
2018

WINERY 와이너리

버지니 떼땡져(Virginie Tattinger)는 1960년 부터 2006년 까지 Champagne Taittinger를 책임져 왔던 클로드(Claude Taittinger)와 Champagne Piper – Heidsieck의 전 오너 캐서린(Catherine de Suarez d' Aulan)의 딸로 태어나 1986년 부터 2006년 까지 Champagne Taittinger에서 20년 넘게 샴페인 양조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해 왔다.

샴페인 떼땡져(Champagne Taittinger)의 설립부터 전성기를 누리던 클로드와 그의 딸 버지니는 2006년, 샴페인 하우스를 매각 후, 2008년 그의 아들 페르디낭 (Ferdinand)과 함께 샴페인 버지니티(Champagne Virginie T.)를 설립하며 샴페인 떼땡져의 아성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특별한 샴페인을 생산하고 있다.



WINE INFO 와인 정보



Champagne, France
프랑스, 샴페인

Alcohol 알코올 12.5 %

Contents 용량 750 ml

Variety 포도품종 Sparkling Wine

Pinot Noir 피노 누아 100%

Awards 수상내역

- 2018년 빈티지 최초 빈티지
- James Suckling Points 93P

Winemaking 와인메이킹

- 6년 동안 효모와 숙성
- 100%의 그랑크뤼 밭에서 선별한 포도사용(Verzenay, Verzy, Mailly, 몽타뉴 드 랭스 마을)
- 100% 말로락틱 발효 진행
- 리터당 5g의 잔당, 엑스트라 브뤼(Extra Brut) 당도 유지

TASTING NOTE 시음 노트

Sight 색감

황금빛이 감도는 짙은 노란색

Dry 1 2 3 4 5 Sweet

Light 1 2 3 4 5 Full

Nose 향

잘 익은 피노누아에서 느껴지는 과일류의 짙은 아로마와 말린 과일, 과일 통조림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아로마가 인상적

Palate 맛

신선하고 잘 익은 과일류의 깊고 짙은 아로마가 산뜻하면서도 우아한 산도와 절묘한 밸런스를 이루며 풀 바디한 바디감과 섬세한 여운이 오랫동안 이어짐

Serving Tip 와인 팁

8 도에서 음용

그릴에 구운 관자 또는 연어 스테이크, 해산물 요리, 모듬치즈류

Copyright (C) Chikovino International Co. All rights reserved.